

계사년 새해를 맞아 법체청안의 축원과 서원하시는 모든 불사가 원만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겨울을 보내기가 더욱 힘들 테니 안타까운 마음이 더하기도 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시대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정치도 양쪽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은 여전하고 이제는 세대 갈등의 양상도 보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갈등할 때마다 화합승이라는 우리 스님들과 불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교가 안으로 자성과 채신에 박차를 가하여 신뢰 받는 불교로 거듭나 세상에 평화와 안락의 길을 더욱 더 밝혀 나가야겠습니다.

이번 설을 맞아 이러한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고자 『百日法門』을 보내드립니다. 이 법 문은 많이들 가지고 계시지만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불교가 화쟁하여 소통시키는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부처님의 中道사상을 좀 더 천착해 보자는 뜻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종단 정화 이후 처음으로 총림을 재건한 1967년 가야산에서 방장으로 추대된 성철스님의 동안거 법문을 엮어낸 것입니다. 이 법문은 부처님의 깨달 음에서 출발하여 불교사상사 2500년을 中道사상으로 회통하고 있습니다. 이 中道사상 이야말로 안으로 선악, 시비의 갈등을 여의고 지혜를 밝히고, 사회적으로는 빈부, 좌우, 노소의 대립을 화쟁시켜 나갈 부처님의 정수 법문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人天의 師表인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 원력을 더 함양하고,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지금처럼 늘 화 합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방안을 내기 위해 지혜를 더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원로 대덕, 중진 스님들께서도 이러한 정진에 지혜와 경책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겨울의 추위가 뺏속에 사무치지 않고, 어찌 매화 향기가 코를 찌르랴!”는 황벽선사의 계송처럼 동안거 精進如一하시어 따뜻한 봄날 매화 향기를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불기2557(2013)년 설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